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BC 6세기에 중국에 살았던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동양사상의 형성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가(儒家)의 사상이 인류의 규범과 정치의 근본을 다룬 것이라면, 도가(道家)는 일반 대중의 삶에 대한 이치를 밝힌 것이라 우리 서민에게는 더욱 친숙한 고전이다. 도를 깨닫아 덕을 얻는 내용으로 된 도덕경은 서른세 장의 도경(道經)과 마흔네 장의 덕경(德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경의 첫 장에 나오는 구절이 도덕경 전체의 내용을 암시한다.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 길이라 부르는 길이 다 길이 아니며,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나 법칙 그리고 지식의 체계나 현실들이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문구가, 내가 관련하는 건축과 디자인의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도 절실히 다가온다.

요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마치 시대의 화두가 된 듯하다. 성장한계에 부닥친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디자인에서 찾고 있으며, 모든 도시들이 디자인위원회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도시 디자인을 최우선

의 정책으로 삼아 골몰하는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되니 건축가인 나로서는 반갑기 짙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디자인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많은 전략과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것일까? 나는 여러 곳에서 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제 진행된 디자인의 실상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걸가죽의 분침에 이다 길이 아니며,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나 법칙 그리고 지식의 체계나 현실들이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문구가, 내가 관련하는 건축과 디자인의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도 절실히 다가온다.

요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마치 시대의 화두가 된 듯하다. 성장한계에 부닥친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디자인에서 찾고 있으며, 모든 도시들이 디자인위원회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도시 디자인을 최우선

수의 특별함이 우선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디자인의 유효기간도 지금히 단축되어 매일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 오브제가 가졌던 전통적 권리가 사라진 것이다. 서구에서 형성된 20세기의 디자인 관념으로는 변화무상한 이 미디어테크놀로지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바야흐로 디자인은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총감독 직을 작년에 위촉받아 그 주제를 정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다시 들추었다. 현상에 대한 의문이 끝 때면 본질로 회귀하는 습성이 때문이며, 환경이 변할 때 그 본질을 다시 묻는 것은 그 변화의 정체를 모른 체 흐름에 훔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움켜쥘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노자의 도(道)를 그림이나 디자인을 뜻하는 다른 한자인 圖로 바꾸어 圖可圖非常圖로 주제를 정하였다. '디자인이라고 일컫는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이전 오백 년 전이 지난지만, 오히려 지금이 협자의 명구가 나에게 절박하게 꽂혔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지금 이 혼돈의 디자인시대에 우리 모두를 성찰하게 하는 절실히 주제라고 믿는다.

〈건축가·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주종대

겨울철 따뜻한 곳만 들어가면 아침없이 안경에 끼는 성에, 거의 매번 반복되다보니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서 때 빼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종종 시야가 흐려져 당황할 때가 많다. 또 겨울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경과 렌즈는 번거롭기만 하다.

시력이 나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우 스카이즈 때마다 또 다른 고민이 빠진다. 안경과 고글을 동시에 쓰거나 겐즈 착용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키장에서 안경과 고글을 동시에

인 등의 레이저가 있다. 그 중 아마리스 라식은 빔 사이즈가 0.54나노미터로 가장 작아 더욱 정밀하고 섬세한 각막 절삭이 가능. '완벽기술 제7세대' 역시 레이저와 불리고 있다. 작은 레이저빔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막에 불필요한 에너지 전달로 인한 과정이나 저고정 등의 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잔여 각막 두께가 기록돼 시력 개선효과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또한 아마리스는 안구의 상하, 좌우,

회전, 회선 등 6차원 안구추적으로 복잡한 운동법칙을 모두 추적할 수 있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정적 수술을

안경과 이별하기

착용하는 경우 안경이 고글에 놀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자자 충돌로 인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렌즈는 악기처럼 건조해져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겨울에는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겨울철 첨단과학의 힘을 빌려 겨울휴가 시즌 동안 라식, 라섹 수술을 통해 각종 부작용 등에서 영원히 탈출하기도 한다.

라식 등 시력교정술에 사용되는 많은 엑시머 레이저가 있는데 그 기종에 따라 성능이 다양하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다양한 레이저 기종을 보유한 병원을 찾아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 좋다. 즉 환자들의 눈은 손바닥의 지문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맞는 레이저 기종을 선택하고 안전성과 최상의 시력 결과를 얻는 것 이 중요하다.

최근 엑시머 레이저의 주세는 flying spot의 레이저 빔 조사방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리스, 알레그레도 블루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력교정술은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의료 진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수술결과는 여를과 겨울의 계절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 다만 겨울철 이 수술을 받기 위해 적합한 여리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무엇보다 수술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강한 자외선과 외부충격이다. 겨울이라고 해서 자외선을 우습게 보면 큰 코 딜진다. 봄, 여름에 비해 햇빛이 약해지긴 했어도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 만큼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겨울철 안구건조증의 위험 역시 증가한다. 라식 후 호소하는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은 시력교정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밝은안과 21병원 원장〉

기고

서성필



제3순환도로는 광주시를 중심 축으로 담양군과 장성군, 나주시, 화순군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이다. 이러한 광역 도로망이 완공될 경우 광주와 주변 시·군과의 교통망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면 서 물류 운송체계에 큰 변화를 주고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중인 호남고속도로 동립 분기점과 장성~담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진입함으로써 접근성이 향상 및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 비의 절감효과가 매우 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무 신도시, 동립·북광주 나들목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로와 함께 황룡강이 흐르고 있다. 이 인근을 시민

같은 밀집형에서 좀 더 폐쇄하고 여유 있는 전원생활형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전원생활형 단지의 필수조건은 의료·쇼핑·교육 면에서 대도시 중심과의 접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북광주 나들목은 물류 등에서 광주의 관문으로 손색이 없다. 이곳에 화물터미널을 유치할 경우 고속도로 접근성이 최상이다. 대형 쇼핑센터와 함께 화물터미널을 유치할 경우 시 효과는 매우 큼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북광주 나들목은 시가지 도로와 함께 상무 신도시에서 동립·

북광주 나들목을 연결될 경우 상무~동

제3순환도로와 연계한 광주시 발전 방향

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면 폐쇄한 주거환경과 함께 최적의 도시조경을 만족할 것으로 본다.

넷째, 현재까지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광범위한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가격이 높다면 개발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일대 토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상태에 있어 토지보상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성~담양 간 고속도로망 주변과 북광주 나들목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일대는 혁신도시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지역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 일대는 광주·전남 발전의 중요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지역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큰 장애물이다. 광주의 북광주 나들목 주변 개발을 위해 제3순환도로 내측에 있는 토지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장〉

여성 금연 상담·클리닉 활성화 정부·지자체가 나서야

담배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롭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성의 흡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니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여성은 남성보다 폐 면적이 10% 가량 작아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흡연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12배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암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흡연 여성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을뿐더러 불임과 유산의 위험이 2배 높고, 조산이나 선천성 기형과 출산 위험도 많이 증가한다.

특히 여성은 신체적인 특성상 니코틴 대사가 빨라 흡연욕구가 강해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남성보다 끊기가 더 힘들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 전용 금연 상담이나 클리닉을 더욱 활성화해 여성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주·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 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지역 정치권 언제까지 '사분오열' 할 것인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대책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협약사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자치구·간 경계 조정,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을 놓고 반복되는 거듭하면서 뇌리 갈등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시가 유치위원회까지 꾸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타지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책의 종합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도 이 지역 일부 의원들이 그려온 사설 조차 몰랐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동 보조를 취해 밤 빠르게 대처하고, 대구·경북의 의원들 역시 산·학·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광주지역 정치권이 유리한 입장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지역 정치권에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하기 어려운 판에 정치적 이해 관계에 매달려 사회적 갈등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지역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본보가 이달 초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57.1%가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8명 중 5명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지역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객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기도 전에 나누한 고위직 인사가 벌써 7명에 달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원하는 정부라면 이런 연속적인 인사 실패는 있을 수 없다.

MB 정부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진리를 깨닫고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시급함을 깨달아야 한다. 민심이 떠난 정부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

MB 정부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진리를 깨닫고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시급함을 깨달아야 한다. 민심이 떠난 정부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객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기도 전에 나누한 고위직 인사가 벌써 7명에 달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원하는 정부라면 이런 연속적인 인사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객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기도 전에 나누한 고위직 인사가 벌써 7명에 달한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객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기도 전에 나누한 고위직 인사가 벌써 7명에 달한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객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기도 전에 나누한 고위직 인사가 벌써 7명에 달한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